

현실이었습니다. 마침 부다님에 전해줍니다. 이쿠선생님에게요? 저의 허락과 동의가 없는데도

“권 선생님. 2013년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청도에 가서 뵈던 박목사님 사모님…기억하나요?…권 선생님 발표하는데 앞에서 하품한다고 저에게 말씀했던 분…기억

하나요?”“당연히화나죠…그때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당뇨가무서운것은28%이상이

“기억하죠…당뇨병과 의식이 많아서 앞으로 박 목사님이 활동하는데 욕을 많이 듣게

됩니다.조산자성분…기억합니다.암은합병증일뿐아니라증도편입니다.고리외영속씨원심향고권생말원할날삼겨줬네요.왜성적입니다.대영속씨채상할부정적으로때문에노병하기

“하하하하…제가말고있습니다…말씀세워합니다.생각을지오날의영속씨에게말씀드리고

“어제 저녁 늦게 박목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유방암 4기에 골반 전이 되었다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산 병원에서 조용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임종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과 가족입니다. 좋은하지…….”

“…….”“…….”“권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박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것 보니, 2013년 청도 일의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하하하…….목사님…제가 목사님처럼 소심하지는 않습니다…….하하하하…….2013년 그 때문은 아니고요, 그분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닌 박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연락한 것도 그렇군요. 본인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 보듯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목사님들은 딱 질색입니다. 목사, 신부, 스님이라는 특정 신분을 통하여 자기 자리 지키고자 하는 야심이 종교인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박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2013년 청도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궁금하고 살고 싶으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이것이 사람 사이에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을 그렇게 오히려하십니까?아있네요.쯔쯔쯔”그런결말을알면이타에있는대응을마아프겠습니까?